



# Interview



## 자유와 삶의 의미를 향한 끝없는 도전

백태웅 교수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을 역임하였다. 학생운동 관련 제적, 구속, 복학 등을 거쳐 1990년 졸업한 후, 2001년 미국 노틀담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LL.M)를 받았고, 이후 미국 뉴욕주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J.S.D.)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비지팅 스칼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 법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미국 하와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5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으로 선임, 2020년부터 의장으로 활동 중이며, 2018년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맡아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며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 현 2030세대에 대한 생각

교수님께서서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해오시고 끝없이 도전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요즘 젊은이들, 특히 기성세대는 “어려움 없이 자라나 유약하다”고 평가하고, 이에 맞서 “고성장시대를 거친 어른들은 모른다. 요즘 우리가 직면한 치열한 경쟁을 아느냐”라고 응수하는 2030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젊은 세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그동안 한국사회가 겪은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기성세대는 한국전쟁부터 민주화 과정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 인간이 일생에 겪을 변화의 총량이 있다면, 우리세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용량초과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할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고, 한편으론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살아냈다는 점에서 도전에 대한 성취감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여전히 성장해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받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가 도전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종류는 기성세대의 것과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세대가 직면한 도전을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기존 세대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30세대가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을 삶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철학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젊은 세대는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에 매몰되기 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소중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의 삶까지 관심을 가진다면 기성세대와 훨씬 다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현 세대의 철학적 고민은 무엇인지, 그들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든 세대가 함께 토론하고 뜻을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 하와이 대학에 대해서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하와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과목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

### “내년은 한국학연구소 설립 50주년, 세계의 한국학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

국의 한국학연구소 중에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설립된 지 가장 오래 되었고, 연구자 규모로 볼 때도 가장 큼니다. 197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내년에 연구소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미국에서 한국학의 출발점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아시아 국가들에 필요한 통역이나 암호해독, 언어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는데요. 1960-70년대를 거치며 한국학에 대한 연구는 정치·문화적 부분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학 연구자의 규모가 커지고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어 현재는 음악, 건축, 법 등 아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연구소 건물은 한국식으로 지어졌습니다. 혹자는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경복궁의 근정전 건물을 모방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학연구소 건물은 1974년에 착공하여 1980년에 완공되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이런 건물을 짓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와이 내에서 한국식 건물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도 큰 것 같습니다.

연구소의 7번째 소장으로서 영예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학연구소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역할, 그리고 세계 속에서 여러 한국학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와 하와이 지역 교민, 나아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협력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예비 변호사들에게 돈보다 큰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 중”

하와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국제인권법, 비교법, 한국법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경험한 실제 상황을 학생들에게 전해 간접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 보람을 느끼고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 취직하면 돈을 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삶이라는 것이 돈만 좇아서 재밌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래의 변호사들에게 더욱 폭넓은 꿈이나 비전, 따뜻한 가슴을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의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는 교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그룹의 의장직을 맡고 계신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Q

### ‘강제실종’이 무엇인가요?

A

### “‘강제실종’ 성립에는 3가지 요건이 필요, 실종을 무기로 사용하던 역사의 산물”

1970년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소위 Dirty War라고 해서 군부가 전쟁 혹은 국내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실종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권에 반하는 학생이나 단체 구성원을 납치해서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명확한 납치 주체가 몸값을 얻기 위해 협박하는 경우는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지만, 납치 주체와 목적, 실종자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범죄 요소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민법상으로도 납치 주체를 몰라 보상을 얻을 수 없고, 정부에도 대책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전 세계에서 목도되면서 처음으로 ‘강제실종’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제실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①(본인의 의사에 반하는)자유의 제한, ②직·간접적인 최소한의 양에 준하는 정부의 개입, 그리고 ③정부가 실종자의 생사 여부나 소재를 밝히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그 것이죠. 이 3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강제실종으로 판단하고 비로소 정부에 실종자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실종에 개입된 사람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가 아직 행방불명일 경우 인권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 “인도적 측면의 지원과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유엔인권이사회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라는 것입니다. 개별 국가와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별 특별보고관과 사안별 특별보고관이 임명됩니다. 주제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다루기 어려운 부분은 실무그룹이라고 해서 5인의 워킹그룹을 둡니다. 그래서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다섯 명이 전 세계를 담당합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주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실종자 가족과 정부 간의 소통 채널로 기능합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해당 정부에 사안을 통보하고 정부가 이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 관련 내용을 피해자 가족에 전달하여 직접 대화가 어려운 피해자 가족과 정부가 실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강제실종 실무그룹에는 모니터링 기능(Monitoring Function)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실종 사건에 대해 원인과 패턴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국가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제안, 보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청원에 대해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면 실종자가 국가 내에서 테러리즘이나 비상조치법에 따라 일상적인 구치소가 아닌 곳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죽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개입 자체가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무그룹의 일이 스트레스가 크기도 하지만 막중한 사명감도 듭니다.

Q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A

“워킹그룹의 대표이자 사무국 전반 사업을  
관장” “비회기에는 그룹의 얼굴이 되기도”

가장 중요한 역할으로 5인으로 구성된 강제실종 실무그룹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합니다. 더불어 유엔 내에 다른 절차들과 조약기구, 국제형사재판소, 각 지역의 인권위원회 등과의 협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3차례, 매 10일간 이루어지는 정기회의 때는 5명의 위원들이 함께 정부 대표와 면담하고 필요한 내용을 상담하는데요. 비회기 기간에는 의장이 그룹의 얼굴이 되어 정부 간의 분쟁을 다루거나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Q

법연의 이번 특집 주제는 ‘코로나19를 살리내는  
국민’인데요. 코로나19가 강제실종이나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A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조 더욱 어려워져”

코로나19 시대에도 강제실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생한 강제실종 사안에 대해서 가족들이 감옥이나 비밀구금시설에 가서 실종자를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대민접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나아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협력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실종자의 신원 확인과 이후의 인도적인 절차를 밟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신도의 경우 가족들이 실종자의 신체 일부를 받아야 장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죠.

Q

강제실종실무그룹 활동과 관련하여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A

“우리나라가 강제실종 협약 비준에 나서  
국제적 역할 해야”

저희는 매 회기 여러 국가의 실종자 가족이나 시민사회 대표들과 면담을 하는데, 면담 장소에는 항상 휴지와 물이 놓여 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들은 이미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을 찾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행입법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실종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협약 비준에 나서 국제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Q

한국법제연구원에 기대하는 점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비준하는 데 있어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제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에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A

“K-LAW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되길”

한국법제연구원의 업무는 단지 국내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이 점차 커가면서 한국법의 세계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현실적 요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외국법을 조사하여 한국법에 반영하는 것이 주로 한국법과 세계법 간의 상호작용이었다면, 이제는 한국법이 세계적인 쟁점을 풀어내는 논의를 선도하고 세계법의 시스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을 넘어선 한국법의 역할을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